

Press Release

이은새 개인전- 밤의 괴물들  
Eunsae Lee Solo Exhibition- Night Freaks

**오프닝: 10월 5일(금) PM 6:00 / 대안공간 루프**

술에 만취한 젊은 여성을 범죄의 표적으로 삼는 한국 사회,  
이를 주제로 삼은 이은새의 회화

여성을 피해자가 아닌, 사회적 관습에 반격하는 주체로 삼은 이은새의 회화!



## 1. 전시개요

전시제목: 밤의 괴물들 Night Freaks

전시기간: 2018년 10월 5일(금) - 11월 4일(일)

전시장소: 대안공간 루프

관람시간: 10:00am - 7:00pm / 입장료 없음

참여작가: 이은새

오프닝: 2018년 10월 5일(금) PM6:00, 대안공간 루프

주최/주관: 대안공간 루프

후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 2. 전시소개

이은새는 주변에서 마주하게 되는 불만과 이에 대한 저항의 시도들, 반항적인 상상들을 주제로 한 일련의 회화 작업을 소개했습니다. 대중문화, 소셜미디어, 개인의 경험에서 출발하여 직간접적으로 목격한 한국 사회에 대한 저항을 담은 회화를 그립니다. 단순한 형태, 얇고 빠른 붓질, 독창적인 색 조합으로 작가만의 미감을 만듭니다. 이번 개인전에서는 술에 만취한 여성의 이미지를 회화의 소재로 가져옵니다. 피해자, 범죄의 표적 등의 이미지로 소비되는 여성의 대상화를 경계하며, 그들에 대한 반격의 접근을 시도합니다.

### 이은새 (b, 1987)

이은새는 홍익대학교 회화과를 졸업하고 한국예술종합학교에서 평면조형 전문사 과정을 수료했습니다. <길티-이미지-콜로니, 갤러리2, 서울>, <틈; 간섭; 목격자들, 서교예술실험센터, 서울>, <틈; 간섭; 목격자, 갤러리 조선, 서울> 등 3회의 개인전을 개최했고, <정글의 소금, 베트남 여성 박물관, 하노이>, <의문형의 희망, 탈영역 우정국, 서울>, <Read My Lips, 합정지구, 서울>, <북극의 개념: 정신분열증적 지리학, 아마도 예술 공간, 서울> 등 주요 단체전에 참여했습니다.

## 3. 작가인터뷰

**이선미 큐레이터 / 대안공간 루프 (이하 이선미):** 최근 미투운동과 함께, 미술계에서 여성주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술에 만취한 젊은 여성들>이라는 소재는 이 관심과 직결된다. 이 연작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 술에 만취한 젊은 여성들의 어떤 이미지를 포착하고자 하는가.

**이은새:** <밤의 괴물들>시리즈는 작년 4월 단체전으로 참여한 <리드마이립스, 합정지구>에서 처음 시도했다. 합정지구에서 전시했던 두 작품은 술에 취한 여성을 주제로 했다면, 이번 개인전은 술취한 여성을 포함한 다양한 상황에 포진해 있는 사람들까지 대상을 확대했다.

그림 속 인물들은 밤을 배경으로 활동한다. 젊은 여성들에게 어두운 밤은 두려운 시간이다. 술에 만취한 여성들은 어둠이 내려앉으면 활동을 시작하는 사냥꾼들의 타겟이 된다. 그들에게 술취한 여성은 범죄의 대상, 성적으로 접근하기 쉬운 존재, 마치 곧 문란해 질 것 같은 존재로 보인다. 그들이 어둠을 틈타 사냥터에 들어서는 순간, <밤의 괴물들>은 매우 공격적이고 무서운, 그들이 사냥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 그들을 바라본다. <밤의 괴물들>은 술에 취한 여자들을 비롯하여 다양한 상황에서 온몸으로 분노와 광기의 에너지를 뿜어내는 사람들이다. 무방비 상태의 어두운 밤에 <밤의 괴물들>은 오히려 사냥꾼을 향해 끔찍한 반격을 할 준비가 되어있다.

**이선미:** 회화 속 등장 인물들은 납작하고 뭉뚱그려진 형태를 갖는다. 표정은 괴기스럽기까지 하다. 여성들을 피해자 서사로, 연약한 존재로 인식하는 사회적 관습에 대한 반항이라고 보는가.

**이은새:** 화면 속 인물들은 뚜렷한 대상이 있거나 사진을 보고 그린 것이 아니다. 기억이나 상상을 기반으로 재구성한 인물들이기에 좀 더 뭉뚱그려진 형태로 표현된 것 같다. 신나고 화난 표정들을 좀 더 극적으로 보여주려 했으나 괴기스러움을 의도하지는 않았다.

**이선미:** 이은새의 캔버스는 빠르고 얇은 붓질로, 스프레이를 사용하여 그래피티 같은 미감을 만들어내곤 한다. 캔버스에서 지향하는 미감이 있는가. 자극적이고, 대비가 강한 색채를 사용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은새:** 지난 전시에서는 얇은 붓질로 이미지를 강조하고자 했다면 최근 작업은 얇은 붓질 외에 좀 더 거친 붓질이나 물감이 드러나는 표현을 함께 사용했다. 스프레이는 한 그림에서만, 아주 작은 부분에 사용했다. 기존의 붓질로 나오는 선이 아닌 다른 선을 그려보고 싶었다. 작업을 구상하는 과정에서 컴퓨터로 이미지를 제작할 때가 있는데, 그 과정에서 나오게 된 것 같다.

지향하는 미감이라면 캔버스 안의 화면이 단단하게 완성되기 보다는 언젠든 다시 뒤섞일 것 같은 상태처럼 보이길 원한다. 그것을 성공적으로 수행해내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림의 밑면을 그대로 드러내거나 입체감이 있는 형태 위에 납작한 선을 올리는 등 완전한 몰입을 방해하는 요소를 함께 연출하여 유동적으로 보일 수 있는 장면을 기대한다.

**이선미:** 이은새 작가는 작은 캔버스에 먼저 그린 후, 대형 캔버스에 다시 옮겨 그리는 방식으로 회화 작업을 진행한다. 회화의 소재를 선정하는 순간부터, 작품의 제작 방법에 대해 소개해달라.

**이은새:** 가볍게 스쳐 지나간 생각부터 인상 깊었던 장면들까지 보았던 여러가지 것들을 그린다. 무언가 봤을 때 바로 드로잉으로 기록해둘때도 있지만 잊고 있다가 오랜 시간 뒤에 꺼내게 될 때도 있다.

캔버스 작업을 위한 드로잉을 반복해서 하는 편이다. 같은 이미지를 다른 방법으로 그려보거나 구도나 표현에 조금씩 변형을 준다. 적절한 표현방식을 찾기 위해 색이나 표현들을 작은 캔버스에 미리 재현하고 충분하지 않을 경우 컴퓨터 작업으로 이미지를 계획한다. 작업 과정 내내 컴퓨터 작업으로 테스트를 해보면서 작업을 진행한다. 때문에 진행 시간이 오래 걸린다.

#### 4. 전시서문

##### 되돌리기 / 살피기

- 류한승(국립현대미술관 학예연구사)

1. 이은새의 작업은 크게 세 단계로 구성된다. 첫째는 무언가 변형되는 상황이다. 둘째는 그 상황을 지켜보는 것이다. 셋째는 그러한 것들을 나열하는 것이다. 물론 그의 작업은 소재, 주제, 구도, 기법 등이 제법 다양하지만, 작품들은 서로 연결되면서 종합적인 의미망을 형성하는 경우가 많다. 그는 우리 주변이나 TV, 영화 등에서 소재를 발견한다. 어떤 것은 지극히 일상적이고 평범하지만, 어떤 것은 꽤나 도발적이고 파격적이다. 그가 소재를 선택하고 다룰 때, 그만의 기발하고 독창적인 감각이 돋보이며, 또한 소재에 대한 진지한 이해와 따뜻한 배려심이 묻어난다. 더불어 그의 표현적이고 과감한, 때론 즉흥적인, 붓질 뒤에는 몇 번이건 이미지를 수정했던 신중함과 꼼꼼함도 숨어 있다.

2. 우선적으로 이은새는 변형되는 순간을 포착한다. 하지만 그것은 단순히 물리적인 변형만을 지칭하지는 않는다. 그의 초기 작품 중 흥미로운 것이 ‘돌 던지는 사람’ 연작이다. 돌을 던지기 때문에 물 위에 파장이 일어나는데, 작가는 그 파장을 본 사람의 내면적 파장도 그림에 담고자 하였다. 그는 무언가 변형되면서 허점을 찌르는 것 같은 장면을 ‘틈’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러한 틈이 생겼을 때, 즉 우리 주변에서 적극적이진 않더라도 일시적으로나마 영향을 끼치는 상황이 되었을 때를 그는 ‘전파상의 간섭’에 비유한 바 있다. 그리고 그런 것을 지켜보는 목격자가 화면에 종종 등장한다. 그 목격자는 사건을 접했던 작가일 수도 있고, 그림을 그리는 작가 자신일 수도 있고, 그림을 보는 관객일 수도 있다. 그런데 이은새는 자신의 위치가 애매하다는 점을 인정한다. 무언가를 지켜보면서 무언가를 해야 할 것 같지만, 아무 것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양다문 손>(2014)에서 그는 망설이면서 주먹을 쥐고 있다. 그는 일부러 물감을 더 두껍게 해서 손을 그렸다. 마치 물감에 힘을 주어 물감이 서로 맞대게 한 것처럼.



밤의 괴물들 - Beach Walk, oil on canvas, 181.8x227.3cm, 2017

3. 이은새는 현실세계를 목격한다. 이어서 그가 본 것을 캔버스의 화면이라는 이미지의 세계로 가져온다. 초창기에는 맥락과 상관없이 필요한 장면을 추출하곤 했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런 태도에 불편함을 느꼈다고 한다. 그는 그것이 착취해서 소비하는 것 같았다고 말한다. 그는 그것을 'guilty', 'image', 'colony'라는 단어들로 지칭하였다. 작가라고 해서 현실세계의 것을 마음대로 가져다 쓸 수 있는 건 아니다. 그는 그가 목격한 것을 다시 생각한다. 목격하는 작가를 목격하는 작가.

2016년 11월 개인전에선 보는 것과 보이는 것 사이의 관계를 뒤집는 작업들이 전시되었다. 예를 들어 <강제 관람>(2016)은 눈 수술 광경이다. 의사가 환자의 눈을 강제로 크게 뜨게 하는데, 그 결과 환자의 눈이 커지고 강력해져서 오히려 환자가 상대방(의사, 작가, 관객)을 쳐다보는 모양새가 되었다. 또 <입을 벌린 점>(2016)은 가슴 부근에 있는 점을 다룬 그림인데, 화면 속 인물은 노골적으로 가슴을 드러내면서 이 점을 보여주고 있다. 작가는 이빨을 가진 사람의 표정으로 이 점을 그리고 싶었다고 한다. 이처럼 이은새는 우리(관객)가 무언가를 보는 장면을 연출했는데, 동시에 그 대상도 우리를 쳐다보는 쌍방적인 상황을 만들었다. 그는 그림을 본다는 통념에 의문을 제기한다. 우리가 그림을 보는 것처럼 그림도 우리를 본다.



밤의 괴물들 - 철봉 운동, oil on canvas, 181.8x227.3cm, 2018

4. '밤의 괴물들' 시리즈는 2017년 5월에 2점이 처음 발표되었다. 이번 개인전에서는 10여 점이 추가로 공개되었고 술 취한 여자들이 대상이다. 보통 술 취한 여자는 피해자, 약한 존재, 범죄의 표적이라는 이미지가 있다. 실제로 여러 사건을 떠올려보면 이 말이 틀린 것은 아니다. 그런데 작가는 술 취한 여자가 하나의 이미지로만 고착되는 것을 경계하며, 그들에 대해 색다른 접근을 시도한다. 그림의 내용은 작가와 그의 친구들이 경험했거나 작가가 상상한 것이며, 주로 술 먹은 후 벌어진 일 중에서 한 장면을 포착한 것이다. 따라서 화면의 장면은 다소 단편적일 수 있지만, 그와 관련된 배후의

이야기가 따로 있다. 그 이야기는 작품제목이나 인물의 동작, 표정 등의 정황증거를 통해 대략적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



밤의 괴물들\_노상방노, oil on canvas, 181.8x227.3cm, 2018

한편 그림에 등장한 여자들은, 비록 취해서 정신이 없더라도, 연약하거나 기운이 없어 보이지는 않는다. 도리어 에너지가 넘쳐 보인다. 그들은 그들 앞에 있는 상대방 혹은 화면 앞에 있는 관객에게 당당하며, 심지어 공격적이기도 하다. <눈 비비는 사람>(2017)에서 인물은 (앞에 사람을 향해) 붉은 눈을 비비며 부라리고 있으며, <밤의 괴물들 - 토>(2018)에서는 (앞에 사람을 향해) 눈을 치켜뜨고 토한 것을 내밀고 있으며, <밤의 괴물들 - 철봉 운동>(2018)에서는 (앞에 사람을 향해) 킁을 날릴 것 같으며, <밤의 괴물들 - Beach Walk>(2017)에서는 (앞에 사람을 향해) 바다에 같이 들어가자고 말하는 것 같다. 이들의 당당한 태도는 두꺼운 물감, 거친 붓질, 강렬한 색채 등으로 표현되어 있다.



나이트 스쿼드, oil on canvas, 45.5x53.0cm, 2017

사실 이들은 어둠 속에 숨어있는 존재가 아니다. 이들 앞에는 항상 목격자가 있다. 그는 현장에 있는 사람이자 작가이자 관객이다. 그리고 이들은 그에게 어떤 행동을 한다. 화면에 등장하지 않는 그에게 어떤 행동을 한다. 이들 앞에 있는 그는 단순한 목격자라기보다는 이들과 관련된 사람이다. 그래서 이들의 행동은 지향성이 있는 행동이며, 그런 행동에 대한 목격 역시 지향성이 있는 행동이다. 이 지점이 이전 작업과의 차별성으로 보인다. 제 3 자로서 그저 바라보는 목격자가 아닌 그 상황에 참여하는 목격자이다. 이는 이전 작업에서 작가가 취했던 ‘양다문’ 것과 ‘guilty’적인 것에 대한 나름의 반성으로 이해된다. ‘밤의 괴물들’ 연작은 전시장에 나열될 것이다. 밤의 괴물들은 관객을 향할 것이다. 다음은 관객 차례이다.

## 5. 작가노트

나는 어떤 사건들에 의한 상황의 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불안정한 순간에 대해 회화로 재현하고자 한다. 그러한 변화를 이끄는 사건들은 상황 속 주체에 의해 스스로 발생하기도 하고 그들의 의지와는 상관없는 외부적 요인으로 불쑥 나타나기도 한다. 그림 속 장면들은 그러한 다양한 방식의 사건의 발화로 인해 뒤틀린 풍경이 되는데 그때, 나는 뒤틀리는 움직임과 함께 섬광이나 파장같은 것이 지나간다고 생각한다. (딱히 섬광의 모습이 아니더라도 다양한 변화의 순간에 맞는 다양한 모습으로 스쳐가는 것이다.) 그 순간은 매우 짧고, 거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 아니, 사실 실제로는 볼 수 없으며 기존의 감각과는 다른 감각으로만 느낄 수 있는 순간이다. 나는 바로 이 순간들을 드러내고자 한다. 그 순간들을 보여주기 위해 선택되는 상황들은 나의 다양한 시각적 체험들 중에 선택한 장면 들이다. 그렇게 포착한 상황-이미지들은 본래 가졌던 맥락에서 벗어나 내가 주관적으로 이해했던 방식으로 표현한다. 나는 수면 위로 돌을 던졌을 때 파장이 일어나는 순간을 본다. 파장이 일어나는 순간만큼은 모든것이 흔들리고 뒤집어질 수 있을 것만 같은 흔들림으로 지나간다. 이 순간은 사실은 정작 그 당시엔 인식할 수 없을 수도 있는 아주 잠깐의 순간이지만 그림은 붓질을 통해 그 순간을 유지시키고 그때의 불안정함을 확장시켜서 보여준다. 또한 그림에서 (언제든 자극에 쉽게 무너질 수 있도록) 애초에 견고하지 않은 붓질로 이루어진 상황/풍경들은 각자 변화의 순간을 마주한다. 그것들은 각각 자연스럽게나 갑작스러운 사건으로 - 보통 밑으로 꺼지거나 위로 분출하는 사건등의- 변형을 겪는데, 이 과정에서 공간/상황/풍경의 뒤틀림은 균열을 만들고 불안정한 혼란을 야기시키는 것이다. 그 순간들은 매번 다른 느낌과 방식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그에 대한 회화적 표현도 각기 개별적인 방식을 취한다. 그리고 상황의 순간에 집중하는 만큼 즉각적으로 표현될 때가 많다. 그러나 그 즉각적인 표현들은 그 순간을 유지시키고 확장하기 위해 여러 레이어로 중첩되어 하나의 화면을 형성한다. 그렇게 보여지는 실재를 구성하는 화면과는 다른, 과도한 색상이나 반전된 색상은 불안정한 순간이 발생하는 과정에서 실제의 감각을 벗어나는 다른 감각이 뒤섞여 나오는 시각적 뒤틀림의 과정인 것이다.

## 6. 작가약력

### 이은새 (b, 1987)

서울 생, 현재 서울에서 거주

### 학력

2010 홍익대학교 서양화과 졸업

2014 한국예술종합학교 전문사 조형예술학과 평면조형 졸업

### 개인전

2016 '길티-이미지-콜로니', 갤러리2, 서울

2015 '틈; 간섭; 목격자들', 서교예술실험센터, 서울

2015 '틈; 간섭; 목격자', 갤러리 조선, 서울

### 단체전

2018 '정글의 소금' 베트남 여성 박물관, 하노이

2017 '정글의 소금' 아세안문화원, 부산

2017.10 '핑퐁', 갤러리175, 서울

2017.10 '의문형의 희망', 탈영역 우정국, 서울

2017.8 '정글의 소금', KF갤러리, 서울  
2017.7 '그린다는 것', 오픈 스페이스 배, 부산  
2017.5 'Read My Lips', 합정지구, 서울  
2016.12 '색채의 연산', 스페이스9, 서울  
2015 '누구에게나 시선은 열려있다', 갤러리 화이트블럭, 파주  
2015 '북극의 개념: 정신분열증적 지리학', 아마도 예술 공간, 서울  
2014 '쇼케이스전', 서교예술실험센터, 서울  
2014 '다른 공기', 스페이스BM, 서울  
2014 '오늘의 살롱', 커먼센터, 서울  
2014 '서늘한 모서리', 석관동교사 갤러리, 한국예술종합학교, 서울  
2013 '동방의 요괴들, 트라이앵글 아트 페스티벌', 스페이스k, 광주  
2013 'Drawn to drawing', 갤러리 175, 서울  
2013 'Drawn to drawing', Gallery NAKAI, 교토  
2013 'Drawn to drawing', Gallery KAZE, 오사카  
2011 '무겁고 깊고 검은', 이목화랑, 서울

#### 전시문의

이선미 / 큐레이터

Tel. 02-3141-1377

Email. [gallery.loop.seoul@gmail.com](mailto:gallery.loop.seoul@gmail.com)

피지혜 / 코디네이터

Tel. 02-3141-1377

Email. [gallery.loop.seoul@gmail.com](mailto:gallery.loop.seoul@gmail.com)

\*고용량 이미지는 Dropbox를 통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단링크)

<https://www.dropbox.com/sh/3hpgkef63lpf5fe/AAA9qTB78QI0GKT9DNpfM-IOa?dl=0>

이미지 제공: 대안공간 루프

#### ALT SPACE LOOP

서울특별시 마포구 와우산로 29 나길 20

Tel.82(0)2-3141-1377 / Fax.82(0)2-3141-7265

[gallery.loop.seoul@gmail.com](mailto:gallery.loop.seoul@gmail.com) / [www.altspaceloop.com](http://www.altspaceloop.com)